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2호

2025.06.19.(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중국·희토류	中, 군사용 희토류는 수출통제 유지	글로벌·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역대 최저치 기록
싱가포르·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R&D 생산라인 가동	EU·원자재	EU, CRMA 전략 프로젝트 역외에서 선정
인나·니켈	'26년까지 현지 금속 거래소 설립	일본·자동차	中 수출규제로 일본 자동차 생산 위기
대만·반도체	대만, 中 화웨이SMC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	한국·안티모니	고려아연, 안티모니 첫 미국 수출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희토류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미국과 중국,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의 화해와 대립
글로벌·배터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 최저... 주원인은 공급 과잉 지속
싱가포르·반도체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싱가포르, 실리콘카바이드 R&D 생산라인 가동

산업·품목 심층분석

중국·희토류	중국 희토류 공급망: 채굴에서 정제, 생산까지
---------------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EU, 친환경 항공유에 구매 보조금 지급 계획
------------	---------------------------

II. 월간 공급망



IMO MEPC 83, 해운 탈탄소화의 분수령: 'Net-Zero Framework'와 국제해운의 미래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

IV. 공급망 소식통



2025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웨비나(~6.2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중국, 희토류 中, 군사용 희토류는 수출통제 유지	6.15.(일)	✓ 中, 민간용 희토류 수출허가는 적극 검토하지만, 군사용 희토류는 기존 수출통제 기조 유지 예정 ✓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기업들에 대해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그린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제안	<u>로이터</u>
2	글로벌,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역대 최저치 기록	6.4.(수)	✓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23년 대비 20% 하락 ✓ 이는 리튬 가격의 하락과 과잉 생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 심화에 기인함	<u>InsideEVs</u>
3	싱가포르, 반도체 싱가포르, 차세대 반도체 R&D 생산라인 가동	6.3.(수)	✓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산업용 8인치 실리콘카바이드 연구개발 생산라인 가동 시작 ✓ 이는 반도체 제조·패키징·테스트 전 공정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허브의 기반임	<u>매일경제</u>
4	EU, 원자재 EU, CRMA 전략 프로젝트 역외에서 선정	6.4.(수)	✓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라 주요 광물 확보를 위해 역외에 소재한 13개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 ✓ 프로젝트에는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배터리 및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필수적인 소재가 포함	<u>유럽연합</u>
5	인니, 니켈 인니, '26년까지 현지 금속 거래소 설립	6.4.(수)	✓ 인니 니켈 광업 협회는 니켈 및 기타 금속에 대한 선물 계약을 위한 국내 금속 거래소 준비 중 ✓ 이는 니켈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임	<u>SMM</u>
6	일본, 자동차 中 수출규제로 일본 자동차 생산 위기	6.14.(금)	✓ 中 희토류 수출규제로 인한 희토류 공급부족으로 닛 스텔라 소형차 '스위프트' 생산 중단 ✓ 이는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한 부품회사들이 조달에 차질을 겪기 때문임	<u>닛케이 아시아</u>
7	대만, 반도체 대만, 中 화웨이·SMIC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	6.15.(일)	✓ 대만은 중국의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인 SMIC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함 ✓ 이로써 대만 기업들은 화웨이·SMIC에 수출하기 위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u>로이터</u>
8	한국, 안티모니 고려아연, 안티모니 첫 미국 수출	6.16.(월)	✓ 고려아연은 반도체, 난연제 등에 사용되는 안티모니 20톤을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선적함 ✓ 올해 미국에 총 100톤, 내년에는 월 20톤씩 연 240톤 이상으로 수출량 확대 예정	<u>연합뉴스</u>

주간 이슈 포커스

①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미·중, 희토류 미국과 중국,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의 화해와 대립



美-中 무역협상 사실상 타결... 미국, 중국산 희토류 선제 공급받기로 합의

- 미-중 양국은 런던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여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영구자석과 희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미국도 중국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
-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55%, 중국이 미국에 10%를 부과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중국의 관세율은 중국 측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예정

출처: 로이터(6.12.)

中, 군사용 희토류는 기존 수출통제 유지... 완전한 무역갈등 해결은 아직



- 중국 상무부는 민간용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 승인을 완화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군사용 희토류*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통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 '25.4.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중(重)희토류 7종(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 단, 런던 무역회담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그린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제안
- 이로써 양국이 합의한 수출통제 완화 조치는 민간·산업용에 한정되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수출규제가 여전히 적용될 예정

출처: 로이터(6.15.), 중국 상무부(6.7.)

미국과 중국은 위와 같이 희토류 수출통제 제한 완화와 같은 단기적 유화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안보, 산업 주권 확보라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무역협상의 강력한 협상카드로 작용하며, 각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의 역할을 함

▶ 미·중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기술 완화 및 견제 조치('25.4.~)

날짜	국가	조치 유형	내용
4.4.	중국	견제	희토류 7종 수출 제한 도입
5.10.~11.	미중 공동	완화	관세 인하 및 90일간 일시적 완화 합의 (미국 145%→30%, 중국 125%→10%)
5.23.	미국	견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대중 수출통제
5.30.	미국	견제	중국 상용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해 제트엔진 기술 수출 제한
6.9.~10.	미중 공동	완화	런던 고위급 회담: (중국) 희토류 수출 6개월 허가, (미국) 일부 반도체 기술 수출 허가
6.12.	중국	견제	희토류 수출 허가받으려는 기업에 생산 관련 세부사항 및 고객 정보 등 민감 정보 요구
6.15.	미중 공동	견제	(중국) 군사용 희토류 수출통제 유지, (미국) 대중 AI 칩 수출규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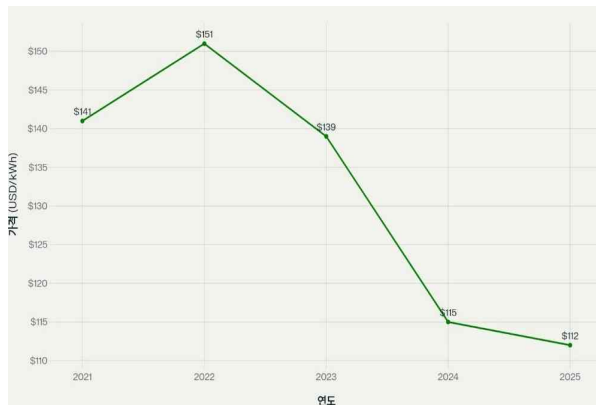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글로벌,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 최저... 주원인은 공급 과잉 지속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EV 전망 2025' 보고서(5.14.)에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이 2024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2025년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공급 과잉 시장 국면으로 인해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이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1~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 변화



▶ '24년 배터리팩 가격은 2017년 이래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함. '25.5월 기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112달러/kWh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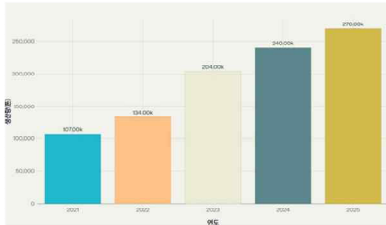
▶ 골드만삭스는 '25년 배터리 가격이 90달러/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23년 149달러/kWh 대비 약 40% 하락한 수준임

▶ 배터리 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지속적 공급 과잉으로, 2025년 전 세계 배터리 생산능력은 실수요의 2.5배를 넘어서, 중국은 전 세계 수요의 92%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음

데이터와 함께 보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하락의 원인

리튬 광물 공급 과잉

2020~2025년 리튬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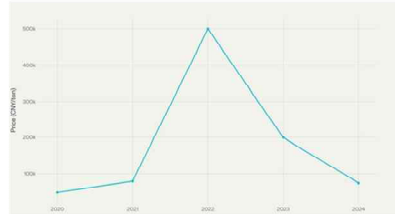


* 2025년 리튬 생산량은 USGS 예측치 사용

-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82.5천 톤에서 240천 톤으로 191% 증가하여 공급 과잉 상황을 초래함.
- ▶ 美 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40,000톤을 기록함

대규모 생산 및 제조 경쟁 심화

중국 내수 리튬 탄산염 가격



* 리튬 탄산염은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소재

- ▶ 배터리 제조 경쟁이 심화되며 리튬 탄산염 수요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어 공급 과잉으로 가격 급락
- ▶ 리튬 탄산염 가격이 급락하여 배터리 제조 단가가 낮아짐. 이에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일부 업체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 출혈 경쟁 이어짐

저가형 배터리 채택 확대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점유율



- ▶ 기존 삼원계 배터리보다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체 배터리 시장의 평균 가격을 낮추고 있음
- ▶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으나, 수명이 길며 안정성이 높음
- ▶ 저가형 배터리의 대량 공급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해, 삼원계 배터리 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가함

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

USGS(미국 지질조사국), IEA(국제에너지기구), Adamas Intelligence 등 기관들은 리튬 배터리의 공급 과잉 상황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미-중 무역갈등 및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미국 현지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출처: 국제에너지기구(6.4.), USGS(6.4.)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싱가포르, 반도체 싱가포르, 실리콘카바이드 R&D 생산라인 가동

AI가 선정한 이슈

2025.6.4일부터 16일까지의 첨단산업 및 핵심원자재 관련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6.5일 보도된 **싱가포르의 실리콘카바이드(SiC) R&D 생산라인 가동** 소식을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 싱가포르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생산라인 가동이 우리나라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A.

▶ 전력반도체 경쟁력 강화 필요성

재생에너지 시대에 SiC 전력반도체는 핵심기술로, 한국도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싱가포르의 개방형 R&D 플랫폼은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 공급망 다변화의 새로운 기회

싱가포르의 부상은 미-중 중심의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2024년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여, 이러한 협력을 전력반도체 분야로 확대할 기회가 있습니다.

▶ 아세안 연계 전략의 중요성

싱가포르가 아세안 및 한국 등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남아 전력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

싱가포르는 2025년 예산에 첨단 패키징 기술 육성 등 반도체 연구개발에 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반도체 산업 더 알아보기

▶ 싱가포르가 SiC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

▶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정부 주도 전략

싱가포르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패키징 기술 육성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글로벌 소재·장비 기업들이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음

▶ 후공정 및 전력반도체 특화 전략

싱가포르는 단순 조립을 넘어 고부가가치 후공정(테스트, 패키징)과 전력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음

▶ 싱가포르의 반도체 대외 의존도

▶ 중간재·완제품 중심의 공급망

싱가포르는 반도체 원재료와 부품의 58.6%를 대만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음. 현지 생산의 상당 부분도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이뤄지며, 중간재·완제품의 수출입이 활발함

▶ 중계무역 중심 국가

싱가포르는 중계무역 중심 국가로, 반도체는 수출 1위(24%), 수입 1위(23%) 품목임.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액 5,145억 달러 중 반도체가 24%, 전체 수입액 4,752억 달러 중 반도체가 23%를 차지함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더 알아보기



실리콘카바이드는 실리콘과 탄소가 1:1 비율로 결합한 화합물 반도체로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음

- ▶ 높은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
- ▶ 우수한 열전도율과 낮은 열팽창
- ▶ 높은 전력 밀도 및 전기적 특성

실리콘 카바이드는 미래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용 모터, 5G 통신 인프라 등 고성능·고효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음. SiC 반도체를 적용하면 전기차 인버터의 에너지 효율이 최대 10% 증가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단축되며, 배터리 수명도 연장됨. 또한 발열이 적어 냉각장치가 간소화되고, 인버터·모터의 크기와 무게도 줄어들어 차량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 따라서 기존 실리콘 반도체 기술을 점차 대체하며,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확산과 맞물려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산업·품목 심층 분석

중국, 희토류 중국 희토류 공급망: 채굴에서 정제, 생산까지

희토류는 주기율표상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화학원소를 통칭하며, 이들은 자기적·광학적 특성이 뛰어나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임. 희토류 자석은 이러한 희토류 원소(특히 네오디뮴, 사마륨 등)를 철, 코발트 등과 합금하여 만든 매우 강력한 영구자석으로, 일반 자석보다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며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발전기 등 다양한 첨단기기에 널리 사용됨

중국 희토류 공급망: 완전한 밸류체인의 내재화

중국 희토류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밸류체인의 완전한 내재화”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탐사·채굴·정제·생산·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 희토류 광산은 북부와 남부로 분포가 뚜렷하며, 광산 인근에 정제·제련 및 가공시설이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순위	국가	매장량(톤)	생산량(톤)
1	중국	44,000,000	270,000
2	브라질	21,000,000	20
3	인도	6,900,000	2,900
4	호주	5,700,000	13,000
5	러시아	3,800,000	2,500
-	기타	9,484,500	101,580
합계		90,884,500	390,000

* 단위: 톤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25)

- ▶ 2024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함
- ▶ 2024년에는 중국 쓰촨성 량산 지역에서 약 500만 톤 규모의 신규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기존의 우위를 강화함
- ▶ 중국에는 내몽골, 장시성, 쓰촨성, 푸젠성 등 아래와 같은 주요 광산지대가 있음

중국에 희토류가 많은 이유

▶ 이온 흡착형 희토류 광상

중국 남부 지역, 특히 윈난성과 장시성 등은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점토광물에 희토류가 이온 형태로 흡착되는 ‘이온 흡착형 희토류 광상’이 형성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광상은 일반적인 광석 형태보다 채굴과 추출이 용이하며, 중국 남부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음

▶ 다양한 지질 구조

중국은 대륙이 넓고 지질 구조가 다양해 많은 종류의 희토류 광상이 존재하며, 장시성 등 일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중희토류 매장지임

중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



자료: 중국 지질 조사

1. 북부의 경희토류 광산: 내몽골 바오터우의 바이원어보

- 북방희토그룹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희토류 광산으로, 중국 전체 희토류 매장량의 83.7% 이상,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8%를 차지
-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가 집중적으로 매장

2. 남부의 중희토류 광산: 장시성 간저우, 푸젠성 등

- 주로 이온 흡착형 중희토류 광산으로, 국방·항공·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가 집중적으로 매장됨
- 장시 간저우 일대는 ‘희토류 왕국’으로 불리며, 세계 중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

🔥 중국의 희토류 산업고도화 정책(2009~)과 희토류 생산

🔍 중국은 2009년부터 희토류 전문 발전계획을 제정, 시행하여 희토류 산업체계 정비 및 고도화 발전을 촉진

연도	법규/정책	내용
2009년	2009~2015년 희토류 산업 발전계획	- 희토류 수출 총량 통제강화 - 미가공 희토류 광물의 수출금지 - 산업구조조정, 기업 통폐합 촉진
2010년	희토류 산업의 지속·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한 의견	-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 촉진 - 신흥 전략산업 육성 - 무분별 개발에 대한 단속 강화 - 희토류 자원 비축제도 구축
2013년	희토류 비축제도 도입	- 2013.9월 주요 희토류 기업 입찰을 통해 총 6,401톤 희토류 비축 - 2014년부터 정부 비축 제도화
2016년	2016~2020년 희토류 산업 발전계획	- 첨단제품 확대 등 산업고도화에 속력 - 2020년까지 희토류 소재 생산량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 - 희토류 기술 및 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2021년	'14.5(2021~2025년) 원자재 공업 발전계획	- 희토류 기업 집중도 향상 및 산업망 구축 지원 - 희토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희토류 소재, 제품, 기술 강화, 재활용 수준 향상

중국 희토류 기업의 양강 구조 재편

2016 Big 6 체제 출범	2021~2022 남부 기업 중심 대합병	2023~2024 양강 체제 완성
▶ 전국 수천 개 희토류 관련 기업을 6대 국유기업*으로 통폐합 * 북방희토,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사먼딩스텐, 광동희토 ▶ 희토류 산업 난립, 불법채굴, 환경오염,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	▶ 남부의 중(重)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을 합병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 ▶ 이로써 북방희토(경희토류), 중국희토그룹(중희토류), 사먼딩스텐, 광동희토 4강 체제로 재편	▶ '23년, 중국희토그룹이 남부의 희토류 자원을 대부분 통합 ▶ 이에 북방희토(경희토류, 내몽골 등 북부)와 중국희토그룹(중희토류, 장시·광둥 등 남부) 양강체제 완성 ▶ '24년, 경희토류 채굴 쿼터는 북방희토에 69.9%, 중국희토에 24.8% 배분, 중희토류 채굴 쿼터는 전량 중국희토에 할당

- ▶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정부 주도로 지난 10년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사실상 북방희토와 중국희토의 양강 체제로 개편됨. 이는 중국 정부가 2016년에 희토류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정하면서 ▲자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며, ▲국내 희토류 산업이 난립하여 환경오염과 불법채굴이 성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
- ▶ 이에 중국산 희토류의 생산 집중도와 효율성이 증가했고, 희토류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이 극대화되었음

중국의 희토류 정·제련 기술

고도화된 용매 추출(Solvent Extraction) 공정

- ▶ 유기용매와 물 층 사이에 희토류 금속 이온을 분배시켜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임.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분리·정제가 매우 어려우나, 중국은 수십 단계의 추출 칼럼* 배열, 온도·pH 미세 조정, 유기용매 조성의 정밀 제어 등으로 고순도 희토류 금속을 대량 생산하고 있음

*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상이 접촉하여 희토류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장치

- ▶ (정량적 제어 능력) 중국은 희토류 간 미세한 원자반경 차이나 배위화학 특성을 활용해, 희토류를 원소별로 정밀하게 분리하는 정량적 제어 능력을 보유함. 이 과정에서 불순 금속(철, 칼륨, 알루미늄 등)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우수함
- ▶ (자동화된 공정)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최적 추출조건 도출, 정광 처리 자동화 라인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희토류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있음

이온교환 및 선택적 침전 기술

- ▶ (이온교환 레진) 특정 희토류 이온만 선택적으로 흡착·분리할 수 있어, 용매 추출 공정과 병행할 경우, 순도와 수율을 극대화함
- ▶ (선택적 침전 기술) 희토류 원소별로 침전 조건을 달리해 원하는 원소만 분리해내는 기술 또한 용매 추출 공정과 함께 사용됨

네오디뮴 자석 제조 공정의 미세결정립 제어

- ▶ 중국은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 제조에서 합금 분말의 미세구조 제어, 소결 및 고온 열처리, 중희토류 (디스프로슘, 터븀) 도핑* 등 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하여 고온 안정성과 뛰어난 자기적 특성을 가진 자석을 대량 생산 가능

* 중희토류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다른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함. 도핑된 중희토류 이온은 주로 에너지 준위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역할을 하며, 소량의 도핑만으로도 소재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대규모·고효율 설비 집적화

- ▶ 중국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표준화된 공정법, 대규모 설비 집적화를 통해 희토류 정제의 경제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여 미국 등 국가가 원료를 확보하여도, 정제·분리 기술 부족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됨

출처

- John zadeh. (2025, May 2). Discovery Alert. Discovery Alert.
<https://discoveryalert.com.au/news/chinas-rare-earth-export-strategy-global-supply-2025/>
- Philip Andrews-speed. (2023). China's Rare Earths Dominance and Policy Responses.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1-16.
- KOTRA 베이징무역관. (2024). 中 희토류 관리제도와 공급망 관리 동향. 경제통상리포트, 24-7.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EU, 친환경 항공유에 구매 보조금 지급 계획

EU(유럽연합)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2,000만 개의 판매 수익을 활용해 항공사들에 13억 유로 (약 2조 원) 규모의 SAF*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로, 화석 연료 대신 바이오매스, 폐식용유, 합성 연료 등을 사용해 생산되며,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음

EC(유럽위원회)에 따르면, 13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은 전 세계 SAF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여 항공사의 SAF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로이터(6.12.)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2주)

비철금속 | 美-中 무역갈등 완화로 동 가격↑, 美 철강제품 관세 인상에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동	9,147	9,352	2.2	9,720	9,774	0.6
니켈	16,812	15,448	△8.1	15,227	15,050	△1.2
아연	2,779	2,757	△0.8	2,657	2,609	△1.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콩고민주공화국 대형광산 생산 차질, ▲주요 거래소 재고량 감소세로 인한 가격 상방 압력

단,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제기로 인해 상기 가격 상방 압력 부분 상쇄

(니켈) 美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 결정에 따른 스테인리스 시장 약세로 원재료 수요둔화 및 中 디플레이션 우려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강 |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 기대에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6.44	△22.0	107.49	107.50	0.0
원료탄	240.90	186.13	△22.7	186.04	178.95	△3.8
철광석	109.89	101.78	△7.4	94.06	94.14	0.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유연탄) 하절기 발전수요 확대전망으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하였으나,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상쇄되어 가격은 보합세

(철광석)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 기대에 따른 산업용 원료 수요 확대에 의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2주)

희소금속 |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美-中 간 관세 유지로 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02	△8.3	1,068	1,068	-
탄산리튬	12,526	9,865	△21.2	8,401	8,468	0.8
수산화리튬	11,398	9,418	△17.4	8,758	8,488	△1.1
코발트 (U\$/lb)	16.25	16.99	4.6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8,960	△7.2	281,250	267,500	△4.9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0,737	9.1	63,525	64,100	0.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지속적인 가격 약세로 인해 생산업체들이 저가 판매를 기피하여 전주 대비 탄산리튬 가격 0.8% 상승

 (수산화리튬) 美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수산화리튬 시장의 수요 부진의 심화 및 생산업체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 전주 대비 가격 소폭 하락

에너지 | 이스라엘군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인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6.1주	6.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85	△7.73	64.25	66.97	2.71
브렌트유	79.86	70.70	△9.15	65.39	68.26	2.87
WTI	75.76	67.39	△8.37	63.35	66.61	3.27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이스라엘군이 이란 군사·핵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 선제공격 작전 개시로 유가 상승

- 6.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 작전을 감행하며 브렌트 유가가 장중 10% 이상 급등
- 6.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여 유가 상승에 기여함
- 단,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국 5월 원유 수입량이 4개월래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유가 상승폭 제한

월간 공급망

IMO MEPC 83, 해운 탈탄소화의 분수령: 'Net-Zero Framework'와 국제해운의 미래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 그룹 연경흠 수석위원

2025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를 통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MEPC 83에서는 2023년 채택된 온실가스(GHG) 감축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수단으로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법률 초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는 해운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의무적 배출 한도와 온실가스가격제(GHG pricing mechanism)를 동시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해운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 순배출(Net Zero) 달성을 위한 연료 탄소 강도 기준 도입, 글로벌 탄소가격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그리고 IMO Net-Zero Fund 신설 논의 등, 다층적인 전환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Mechanism)는 2027~2028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글로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 대체 연료 및 친환경 기술 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ez) IM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에 맞서고 해운을 현대화하려는 우리의 공동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는 파리협정 목표와의 정합성, 전 지구적 시장 메커니즘의 제도화, 그리고 기술 및 재정지원체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정책 패키지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MEPC 83의 주요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IMO의 최신 탄소 관련 정책과 기금 동향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1. MEPC 83의 핵심 결정사항 요약: 'Net-Zero Framework'의 구조와 이행일정

MEPC 83에서는 2023년 채택된 GHG 감축전략의 이행수단을 구체화한 'Net-Zero Framework'의 법률 초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NZF)는 2050년경 국제해운의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괄적인 규제체계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의 새로운 장(Chapter 5)으로 추가될 이 프레임워크는 2025년 10월 특별 MEPC 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후, 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효율지수(EEDI), 선박에너지효율운항지수(CII) 등 운항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연료 수급 구조 및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핵심 정책 메커니즘

GHG 연료 강도 기준(Goal-based Marine Fuel Standard, GFS)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전주기(Well-to-Wake) 온실가스집약도(GFI)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적 규제다. 2008년 대비 단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서 기준연도는 2008년 평균 GHG 집약도(93.3g CO₂eq/MJ)를 기준으로 Well-to-Wake (전주기) 배출량에 대해 평가한다. 모든 적용 대상 선박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 GHG 감축 기준인 기본목표(Base Target)와 기본목표보다 높은 GHG 감축수준을 요구하는 선택적 목표인 직접준수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에 대해 감축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IMO에서 기본목표는 바닥을, 직접준수목표는 천장을 높이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그린전환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분	기본목표 (Base Target)	직접준수목표 (Direct Compliance Target)
성격	강제적 의무	자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감축률	상대적으로 낮음 * 2028년 4% → 2030년 8% → 2035년 30% → 2040년 65% (2008년 대비 감축률)	높음 * 2030년 21%, 2035년 43% 감축 등 기본목표 대비 2~3 배 높음
미달성 시 제재	미달성 시 벌금 부과 * 보완유닛(Remedial Units) 구매	없음 * 단, 초과유닛(Surplus Units) 획득 기회 상실
초과 달성 보상	없음	SU 획득(거래·보관 가능)
주요 대상	전체 선박	기술선도적 선사·신기술 도입 선박

자료: IMO 자료기반 Deloitte 재정리

글로벌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Mechanism)

글로벌 탄소 가격제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IMO 넷제로 펀드’는 이 전환의 재정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선박들은 설정된 GFI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선박은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기본목표(Base Target)는 달성했으나, 직접 준수 목표(Direct Compliance Target)는 미달한 경우를 Tier1으로 분류하고, 톤당 \$100(USD)의 RU(Remedial Unit) 구매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기본목표(Base Target)조차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Tier2로 구분하고, 톤당 \$380(USD)의 RUs 구매의무를 가지고 초과로 감축한 경우 SU(초과유닛) 구매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체계는 선박의 연료 선택, 에너지효율, 운항방식 등 실제 감축 성과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선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SUs 구매, RUs 구매 등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3. IMO 넷제로 펀드(Net-Zero Fund)의 구체적 운영 계획

IMO 넷제로 펀드는 앞으로 국제해운의 탈탄소 핵심적인 재정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MEPC 83에서 펀드의 기본구조가 승인되었으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앞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IMO 넷제로 펀드는 주로 탄소가격제의 일종인 '보완유닛(Remedial Units)'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GFI 기준을 맞추지 못한 선박이 배출량 상쇄를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자금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표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까지는 펀드의 기본적인 틀만 합의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관리·감독 주체, 자금 배분 기준,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운영 방식과 관리체계는 2026년까지 마련될 세부 이행지침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는 펀드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4.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반응: 기대와 우려의 교차

이번 MEPC 83의 결정에 대해 해운업계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 ▶ **해운업계(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우세):** 세계해운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WSC)는 이번 합의를 “기후정책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해운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했다.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규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ICS는 이제 각 선사들이 선박 준비상태 점검, 기술 파트너 협력,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실질적 이행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환경단체(여전히 비판적 시각):** 환경단체 연합인 청정해운연합(Clean Shipping Coalition)과 Seas At Risk 등은 이번 합의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늦었다(too little, too late)”고 비판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1.5℃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며, 벌금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LNG나 바이오연료 등 과도기 연료의 사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 **주요 국가 및 연합(입장 차이 뚜렷):**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최종협상에서 “너무 늦고 불충분한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며 최종투표에서 기권했다. 반면, EU는 IMO의 결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녹색수소 기반연료(e-fuels)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제(FuelEU Maritime 등)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승인은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의 탈탄소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대응을 넘어, 해운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이제 국내 해운업계와 관련 산업계는 변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새로운 규제환경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기술투자와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 ▶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화 (EEXI, CII 적극 대응)
- ▶ 저탄소·무탄소 연료확보 및 공급망 구축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인프라 확보)
- ▶ 선박 온보드 탄소포집 저장(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 OCCS) 등 신기술의 조기 검토 및 도입
- ▶ 초과 유닛(Surplus Units) 시장 적극 참여를 통한 탄소비용 최적화

특히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규제와 지역규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¹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5, April 11). IMO approves net-zero regulations for global shipping. ² Earth.Org. (2025, April 14). World's First Carbon Levy on Shipping 'Too Little, Too Late'. ³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5, June). Note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the sixty-second session of the UNFCCC Subsidiary Body. ⁴ Offshore Energy. (2025, April 14). Aftermath of IMO's net-zero framework: 'Historic' agreement or 'total shipwreck'. ⁵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2025, April 30). MEPC 83: the next steps after a historic outcome. ⁶Seas At Risk. (2025, April 11). IMO's climate deal a total shipwreck. ⁷SASHA Coalition. (2025, May 7). Press release: EU must strengthen clean maritime policy in the wake of disappointing IMO agreement. ⁸Transport & Environment. (2025, April 11). Historic IMO climate deal for shipping a big step, but falls short of what's needed. ⁹Riviera. (2025, May 22). Strategic differences between IMO and EU decarbonisation regimes.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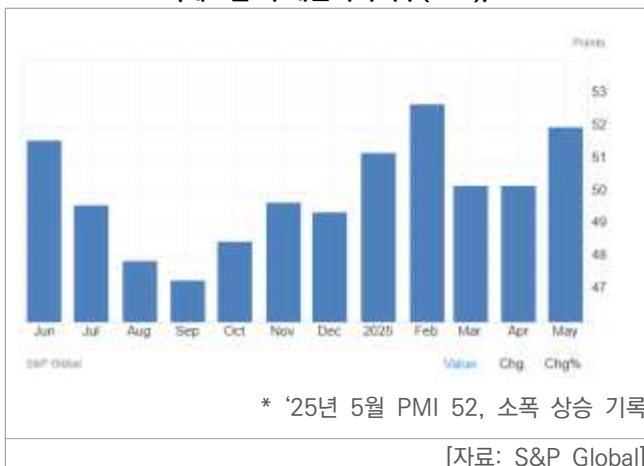
미국 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지표 동향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및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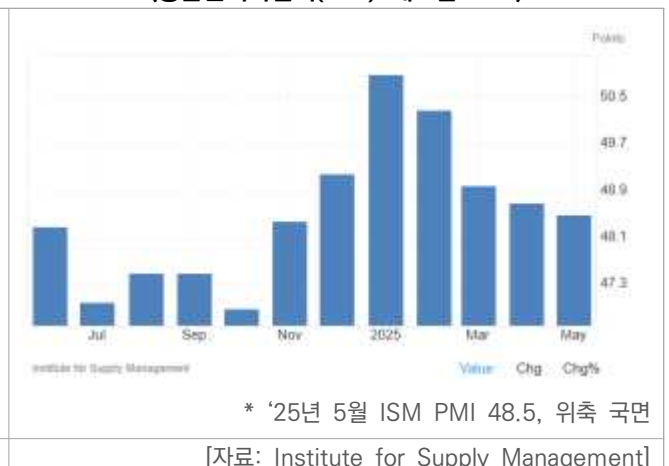
* 기업의 구매 활동을 반영하여 현재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며,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세, 50 미만이면 위축세를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

- ▶ 2025년 5월 S&P Global 미국 제조업 PMI는 52.0(확정치)로, 4~5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으며, 4월(50.7), 3월(50.2) 대비 소폭 상승 기록함
- ▶ 신규 주문은 관세發 가격 인상 전에 주문을 앞당긴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공급업체 납기 지연, 투입재 가격 및 출고가 인플레이션 등 일부 부정적 신호 감지
- ▶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는 5월 48.5로 3개월 연속 위축, 생산지수는 45.4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



기업 생산·고용 및 고용

- ▶ 수입지수는 39.9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부 기업은 관세 회피를 위해 상반기 초 재고를 미리 확보했으나, 이후 투입재 부족 등 우려 제기
- ▶ 고용은 5월 소폭 증가했으나, 신규 인력 채용은 제한적, 숙련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력 상존
 - ▶ 기업들은 무역정책 안정화 기대감에 3개월 만에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 전반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고용 확대는 여전히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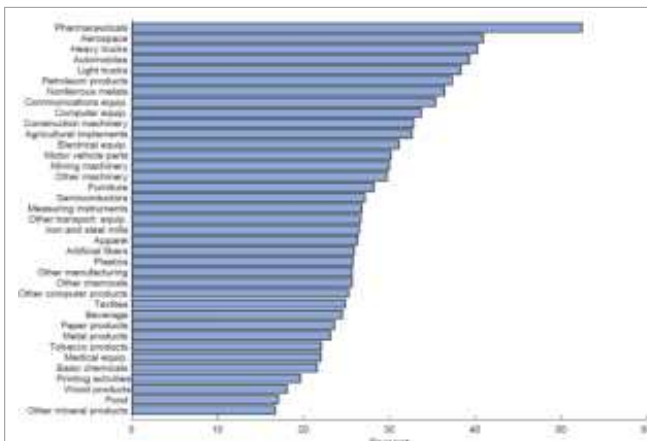
II.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산업별 영향¹⁾

제조업 대상 관세 정책 및 수입 의존도 비중

-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 자동차·부품(25%), 중국산 전자·반도체(34%) 등 대규모 관세 부과 중
- ▶ 미국 제조업 투입재의 16%는 수입에 의존 불가피, 연간 약 1.1조 달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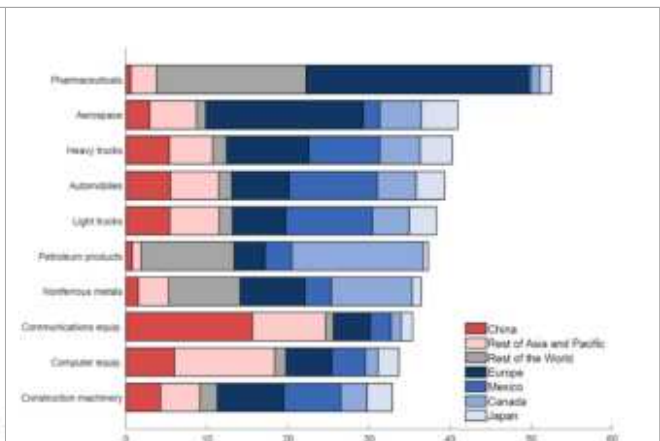
〈산업별 직·간접 중간재 수입 비중〉



* 위에서부터 제약, 항공, 중공업 트럭,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순으로 중간재 수입 비중 높음. (링크)

[자료: Federal Reserve System(2019)]

〈산업별 중간재의 주요국 원산지 수입 비중〉



* 중국 및 아시아, 유럽, 멕시코 의존도 높음. (링크)

[자료: Federal Reserve System(2019)]

(긍정)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관세 영향 긍정적 평가

- ▶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는 가격 경쟁력 강화, 1분기 생산량 2% 증가, 한편, 건설·중장비 등 수요산업은 원가 부담 가중
- ▶ GM, 포드 등 미국 내 생산 비중 높은 자동차사는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로 일부 수혜 전망, 전기차·배터리 부문 국산화 정책과 연계

(부정) 전자, 중장비, 섬유·의류 산업은 관세 영향 부정적 평가

- ▶ 애플, 델 등은 중국산 부품·조립에 34% 관세 적용, 원가 30~40% 상승, 일부 생산 해외 이전 검토 중
- ▶ 중장비 업체는 수입 철강·부품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 투자·고용 축소, 의류·섬유 업체는 방글라데시·중국산 제품 관세로 소매가 10~15% 인상

1) Tariffs: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25 Measures and Proposals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State of U.S. Tariffs: June 1, 2025 (The budget lab at Yale) 등 참조 작성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영향 분석〉

산업	관세 영향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우려	비고
철강·알루미늄	관세(50%)로 국내 생산 확대	생산량 2%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건설·중장비 등 원가 상승, 수요산업 부담	수입 비용 연 220억 달러 상승, 미 생산업체 수익 상승 기대
자동차	수입차 관세(25%)로 일부 기업 수혜	GM·포드 등美내 생산기업 유리	부품·완성차 원가 상승, 일부 투자 지연	부품 수입 의존도 30% 상승, 미 중서부 타격 전망
반도체	중국산 칩 관세(145%)로 국산화 유도	인텔 등美내 투자 확대, 공급망 복원	車·전자용 칩 공급 차질, 단기 혼란	美내 신규공장 520억 달러 투자
전자·컴퓨터	부품·조립 관세(34%)로 원가 급등	일부 리쇼어링 유인	애플·델 등 원가 30~40% 상승, 생산 해외 이전 검토	수입 의존도 45%,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장비·기계	철강·부품 관세로 원가 상승	일부 관련 국내 산업 투자 기대	캐터필러 등 수익성 감소, 투자·고용 축소	철강 가격 20% 상승, 일부 자동화 투자 확대
섬유·의류	의류·신발 관세(31~34%)로 가격 상승	일부 국내 생산 유인	소매가 10~15%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소비자 물가 15~17% 상승, 수입 의존 30% 상승
기타 (건설·농업 등)	제조업 성장에 따른 상대적 위축	일부 관련 국내 산업 투자 기대	건설 -2~3%, 농업 -1% 성장 저해	제조업 성장 1.3~2.5% 상승, 타 산업 위축

[자료: 연방준비은행, 예일대 경제연구소 등 종합]

III. 현지 반응 및 전망

현지 업계 정책 반응 및 동향

현지 업계 요구 및 정책 제안 주요 내용

- ▶ 전미제조업협회(NAM)는 필수 투입재 관세 면제 ‘스피드 패스’(Manufacturer Investment Accelerator Program) 도입,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 환급, 상호 관세 철폐(Zero-for-Zero) 무역협상 등 실질적 지원책 요구(5.30.)
- ▶ NAM은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원자재, 부품, 기계류 등 ‘필수 투입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신설과 투자 확대에 따른 관세 환급(리베이트)* 병행 제안
 - * 필수 투입재 관련 미국 내 투자 확대 시 적용, 2025년 4월 5일 이후 환급 소급 적용 제안
- ▶ NAM 2분기 제조업 경기조사에서 업계 낙관론은 55.4%로,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치 기록, 무역 불확실성(77%)과 원자재 가격(66%)이 가장 큰 부담 지적

현지 언론에서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리스크 및 전망

- ▶ 트럼프 행정부는 친환경·첨단산업 지원법 폐기 검토 중, 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기조를 병행하며 산업별 영향 상이 평가
- ▶ 일부 기업은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 검토, 자동화 투자 확대 중이나 정책 일관성과 규제·지원 균형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 전망 (블룸버그)
- ▶ 아울러, 디지털 전환, 공급망 복원력 강화, 인력 재교육 등 구조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미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딜로이트, KPMG 등)

자료: 연방준비은행, S&P 글로벌 등 주요 관련 보도자료, 현지 언론(폴리티코, 블룸버그, 로이터 등), 워싱턴 DC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공급망 소식통

2025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웨비나(~6.25.)

작성 KOTRA 브뤼셀무역관

행사 개요

- 📌 **목적** : EUDR* Q&A북 개정판** 발간 및 웨비나 개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과 실사 이행 방안을 우리 기업에 전파하고 효율적인 대응 지원

* EUDR: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EUDR 적용 연기 관련 내용과 '25.4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지침문서 및 4차 FAQ 내용 포함

- 📌 **일시** : '25.6.26.(목) 한국(KST) 16:30~17:30/브뤼셀(CET) 9:30~10:30

- 📌 **장소** : 온라인(Zoom 사용 예정, 링크 추후 이메일 전달 예정)

- 📌 **대상** : 산림전용방지법(EUDR) 포함 대EU 정책 관심 기업

- 📌 **프로그램** * 한국시간 기준

시간	내용	연사
16:30~16:35 (5')	개회	
16:35~16:45 (10')	EUDR 개요 및 전망	주벨기에EU대사관 농무관
16:45~17:30 (45')	EUDR 주요 내용 * EUDR Q&A 개정판은 이메일로 송부 예정	KOTRA 브뤼셀무역관

참가 신청

- 📌 **신청 방법** : '참가신청 링크' 클릭 후 구글폼 작성

* 참가 신청 링크 : <https://forms.gle/PpMjwcE5RGQ4Wg8K8>

** 참가신청서 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웨비나(줌) 링크 송부 예정

- 📌 **신청 기한** : '25.6.25(수) 한국시간 18시

-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유지원 과장(ji1.yoo20@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5.6.17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5말	6/13	6/16	6/17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380.10	1,369.60	1,363.80	1,362.70	△0.08	△7.46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76.60	1,366.10	1,361.10	1,359.70	△0.10	△7.74
₩/CNY	181.37	202.38	192.00	190.38	189.24	189.89	0.34	△6.17
₩/¥100	912.25	932.67	959.00	953.90	945.80	941.55	△0.45	0.95
¥/US\$	141.19	157.88	143.91	143.58	144.19	144.73	0.37	△8.33
US\$/EUR€	1.1105	1.0429	1.1341	1.1531	1.1541	1.1564	0.20	10.88
CNY/US\$	7.1092	7.2992	7.1903	7.1812	7.1826	7.1811	△0.02	△1.62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31.8원, (₩/¥100) 963.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6/16	6/17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2.90	73.65	0.8	3.3	△2.3
						1.0%	4.8%	△3.0%
철광석		89.35(9.23일)	100.00	94.25	93.10	△1.2	3.8	△6.9
						△1.2%	4.2%	△6.9%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738.00	9,820.50	82.5	1735.0	1114.5
						0.8%	21.5%	12.8%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508.50	2,530.00	21.5	420.0	13.5
						0.9%	19.9%	0.5%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000.00	14,820.00	△180.0	△145.0	△280.0
						△1.2%	△1.0%	△1.9%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4말	'25.5말	6/12	6/13	6/16	6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2.05	2.83	3.59	3.87	4.07	3.33
(%, YoY)	△14.8	10.8	0.5	4.9	48.5	92.4	109.6	121.6	78.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7.15	7.54	7.73	7.73	8.00	7.72
(%, YoY)	△2.3	4.0	3.9	11.9	18.2	21.3	21.3	25.7	21.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5/30	6/6	6/13	전주비(6/6)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2072.71	2240.35	2088.24	△6.8%	△15.1%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6/10	6/11	6/12	6/13	전주비(6/12)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680	1738	1904	1968	3.4%	97.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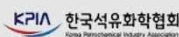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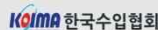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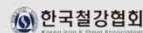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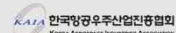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무역안보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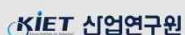
한국광물자원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